

광양시, '친환경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

국비 20억 원 확보...미래 여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 육성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33억 규모 명당3산단에 추진 예정

광양시는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재활용 시장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 그동안 지속적으로 산업부에 건의해 온 친환경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예산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33억 원(국비100, 지방비113, 민자20)의 규모로 명당3산단에 추진된다. 사업내용은 EV·ESS 폐배터리 팩·모듈 자동화 해체분리 장비구축, 친환경 재활용 공정 표준·인증 및 재활용 소재 성능평가 기반 등을 구축하게 된

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은 2025년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122억 달러(약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은 표준화된 평가나 재활용 기준이 없어 재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현재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포스코케미칼이 광양 양극재 공장 생산용량을 연간 3만 톤에서 3·4단계 준공 후에는 6만 톤까지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친환경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를 통해 리튬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글로벌 학회 및 세미나 유치를 통해 광양시를 리튬이차전지 양극재 기술개발, 실증, 친환경 재활용 기술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나주의 EV, ESS 재사용센터와 연계 국내 최초 재사용-재활용을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리튬이차전지의 시장성장성과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경우 지역의 연관 산업의 성장을 통해

2030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와 지역 내 약 1천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은 기초단계로 '친환경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광양의 미래를 여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허석 순천시장,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아침특강

'서민경제 근간' 소상공인 위로하고 경기극복 논의



순천시는 최근 아침, 아랫장 상인교육장에서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원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조계훈)의 요청으로 허석 순천시장의 경제특강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사항 보고형식으로 이

루어졌다. 허석 시장은 특강에서 코로나19 장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그동안 방역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의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활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결합이 중요하며, 순천의 3대 오아시스 사업인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발효산업 연구센터, 중국의 실리 콘벨리인 중관촌 한국지사 유치를 기반으로 한 한·중장신포럼 등 생산적 복지사업을 통해 순천에 인구를 유입시켜 자족도시를 이어가도록 하는 지역발전의 미래비전을 강조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유동 인구를 늘리고, 바른 주소를 갖는 게 소비활력에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남 제1의 도시, 호남 3대 도시로의 확고한 위상을 다지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순천의 경제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020 우수기관 선정

사업관리 역량·사업운영 성과·행정참여도 우수성 인정



보성군 청소년문화의집 별교분소(관장 최재호)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난 7일 온라인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이번 평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310개소 기관 중 농산어촌형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및 온라인 비대면 평가를 통해 실시되었다. 보성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사업관리 역량 및 사업운영 성과, 행정참여도 및 우수사례와 기관장 사업 기여도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장호 관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안전한 곳에서 건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성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고흥군, 기업체로 찾아가는 '전입서비스'

썬밸리리조트서 겨주 창구 운영

고흥군이 고흥 첫 체류형 숙박시설인 썬밸리리조트가 개장됨에 따라 최근 리조트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썬밸리 리조트는 초기 정착단계로 상근직원은 20여명이며, 임직원 40여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으로 지난 8일부터 내년 초까지 격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를 운영해 편의 제공

및 틈새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군 인구정책팀과 도덕면사무소 민원팀이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일 썬밸리 리조트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군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전입창구 운영 일정 등을 홍보해 직원들의 전입을 유도하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등 주민등록 전입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을 적극 발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한지 6개월 경과된 2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 지원금 20만원과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입자에게 종량제봉투 40대(20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20개소를 방문하여 약 50여명의 전입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COP28 개최지 남해안남중권 선결정해야"

여수시, 국회 결의문 환영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9일 오전 남해안남중권 및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COP28을 남해안남중권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하고 정부의 결정 촉구를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적극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남과 경남지역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는 개최국이 확정된 이후 개최지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남해안남중권 시민들의 노력을 배제하고 단순히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

는 일이며, 올림픽이나 박람회처럼 개최국 확정 이전에 개최 도시를 선결정하여 지자체간 소모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번 COP28 개최지를 남해안남중권으로 선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COP28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COP28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의원은 전남지역 10명(이게

호,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 윤재갑, 소병철, 주철현, 김희재, 서동용, 김원익)과 경남지역 4명(박대출, 김태호, 하영제, 강민국)으로 COP28의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별도의 국회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목소리를 모았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 활력, 문명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의남2지구 상가 상인회

의남2지구 상가 상인회
친환경마스크



광산구